도서명: 수학 괴물을 죽이는 법

지은이: 리처드 엘위스, 출판사: 미래인

우선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집 주변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흥미로운 제목의 이 책을 발견하였다. ‘수학 괴물’ 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궁금하였고, 흥미로운 수학 책이 될 것 같아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다. 지은이에 대해 간단히 말을 하자면 리처드 엘위스라는 수학자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영국 리즈 대학의 객원 연구원이다. 대중의 수학 이해를 위해 강연, 라디오에도 자주 출연하는 대중 수학자이다. 이 책으로 말 하자면 일반 대중들에게, 수학적 난제들을 비교적 쉽게 소개하고 있는 친근한 책이다. 지금보다 조금 어렸던 중학교 1~2학년 시절부터 수학 제 7대 난제로 유명한 문제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보자면 푸는 것이 쉬운 문제와 검산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같은가?에 대한 P=NP 문제 등 흥미로운 문제가 많았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세계적인 문제들과 내가 몰랐던 신기한 단순화시키는 그래프 이론에서, 모든 점을 필히 지나는 최단 경로를 찾는 일반적 방법이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러한 문제의 묘미는 문제 자체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푸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있을 것이다. 비록 호기심에서 출발했더라도, 수학은 여러 분야에서 일상을 바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수학과 멀리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며, 수학은 무조건 어렵고 재미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이 책을 읽으며 조금은 가까워 진 거 같아 뿌듯했고, 수학은 꼭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